

artnow

Issue
34

Special:
Art Road_
Jeju, Busan, Daegu

Pick It Up
New Spot
City Now
Flash of Inspiration
Style & Art
World Artist
Art in Life
Final Cut



Artwork by Jung Lee



퍼포먼스 티셔츠 & 메탈 오브제 by PAF

장안의 화제였던 아라리오 갤러리의 전시 <Final Cut>의 주인공인 패션 브랜드 파프(PAF)의 티셔츠와 아티스틱 디렉터 박준영 작가의 메탈 오브제. 티셔츠는 전시의 일환으로 펼친 퍼포먼스를 통해 선보인 제품으로 예술적이면서 동시에 희귀한 아이템을 노리는 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저리 쌓아 올렸지만, 박준영 작가는 전시에 출품한 작품 가운데 두 가지를 미니어처로 만들었다. 접착제를 쓰지 않고 오로지 조립으로 완성해 눈길을 끈다. 가격은 각각 15만원(티셔츠), 35만원(긴 오브제 'E23 Micro')과 50만원(반원 오브제 'E68 Micro')이다.

제주 원도심

Space



좌혜선 <세 개의 방>전(2021). 사진 이현정

새탕라움

2018년 처음 문을 연 제주의 대안 공간이다. 오래된 제주의 가옥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좁은 마당과 낮은 담벼락, 큰 창 등은 안전한 이 도시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젊은 작가들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꾸준히 열면서 제주에 현대미술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띈 전시는 2020년 1월에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기 직전 개최한 <Cut! Cut! Cut!>전. 김정인, 오연진, 유지영, 이은지, 조은지, 주슬아, 황원해 작가가 모여 '프레임'을 키워드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웹 전시와 지면 전시를 선보였다. 올해 4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제주 출신 젊은 작가 좌혜선의 개인전 <세 개의 방>도 개최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동양화를 전공한 그녀는 이 전시에서 특정 공간에 서린 삶과 죽음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공간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시 관람을 위해선 사전 예약이 필수다. 예약한 사람에 한해 문자로 도어록 번호와 관람 수칙을 전해주시니,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스타그램을 먼저 살펴볼 것.

주소 제주도 제주시 서사로5길 15-2 문의 @seetangraum

에디터, 정송



그룹전 <아라리오 컬렉션>(2021).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2014년 탐동에 문을 연 아라리오뮤지엄은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제주에서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탐동시네마와 바이크샵, 동문모델 같은 기존 건물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전시 공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레노베이션을 거쳤다. 작품이 주인공이 되고 관람객이 작품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아라리오 컬렉션>전과 씨 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주소 제주도 제주시 탐동로 14 문의 064-720-8201



사진 이현정

해브유에버

제주 원도심에 아주 세련된 편집숍이 있다. 흰색으로 꾸민 깔끔한 내부와 색깔별로 정리한 의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지만, 중앙 테이블에 길게 놓인 나뭇가지와 함께 진열한 액세서리도 놓칠 수 없다. 독특하고 힙한 유니섹스 옷을 선보이는 게 특징. 온라인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광양8길로 안내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그곳의 소름은 달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소 제주도 제주시 신설로9길 2 문의 064-751-9171